



3면

혁신당, '부패제로 전북선대위' 출범

전주매일

14면

제2회 최정봉사대상 시상식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음 4월 5일) 제39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청소년박람회 개막

'청소년의 상상이 전북의 미래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이 20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전북 청소년박람회는 21일까지 열린다. <관련기사 4면>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 13일간 대장정

이원택·백승재·김관영 도지사 후보 등 첫날부터 세 걸립
정책 대결·조직력 경쟁 치열... 전북 정치 지형 변화 분수령
군산김제부안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관심사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전북 정치권이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향후 4년간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북도지사와 전북 교육감을 비롯해 1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44명의 도의원과 14개 지역시·군의원을 포함하여 280명을 선출하게 되며,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하게 되면 총 282명의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
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세 걸립과 조직력 과시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이원택 후보 측은 이날 오전 6시 완주 봉동 소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오전 7시 40분경 가련광장 사거리 유세에 이어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후보 출

정식을 이어간다. 오후 3시에는 군산 대야시장을 찾아 선거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관영 후보는 새벽 5시 30분 환경 미화 차량 차고지를 방문 새벽 인사를 한 후 오전 6시 30분경 송천동 농산물시장을 찾아 자신의 후원회장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7시 30분경 롯데백화점 앞에서 방문 인사를 하다가 10시경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풍남문 광장에서 '도민 후보'로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세 걸립에 나선다.
국민의힘 양정무 도지사 후보는 전북대 앞 사거리(한국관 앞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출근길 거리 유세를 펼칠 예정이며, 진보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백승재 후보는 오전 7시 30분 안행교 사거리에서 같은당 전주 시장 선거에 나서는 강성희 후보와 합

계 출정식을 겸한 거리 선거운동에 나선다.
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전날인 20일 오전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과 신장식 호남선대위원장, 선대위 지인 강경숙 국회의원,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 도·시의원 출마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당일 별다른 행사 없이 각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또한 전북녹색당, 정의당 전북도당, 노동당 전북도당 등도 사회대진환 전북연대회의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20일 열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으며, 21일은 별도의 행사가 없이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무소속 도지사 후보인 김성수 후보 역시 이날 오전 9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유세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각 후보 간 정책 대결과 조직력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한 선거의 승패를 넘어 향후 전북 정치 지형 변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지역 언론과 방송사들의 여론 조사에서는 전북도지사 선거와 전북 교육감 선거 모두 주요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함께 치러지는 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지역 정치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한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라공천을 받은 박지연 후보와 무소속 김종희 후보 간 맞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 조직력과 인지도 정당 지지층 결집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또 신영대 국회의원의 권위로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라공천 후보인 김의걸 후보와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 간 경쟁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단순한 전북의 국회의원 두 자리 의석 확보를 넘어 향후 전북 정치 지형과 각 정당의 지역 영향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선을 위해 시력을 다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01만호 기자

社 告

6.3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특별취재반 가동

본보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맞아 21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신속·정확·공정한 보도를 위해 특별취재반을 운영합니다.

전주매일신문사

고속·공항버스 노선 확충 전북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

전주·군산·익산·김해공항, 부안·인천공항 등 신규 개통
전주역 고속버스 정차 신설... 전북 동부권 교통편의 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겸임·사진)이 전북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항버스와 고속·직행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다. 서울 센트럴파크미널에서 전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가운데 하루 6회는 전주역에 추가 정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도와 연계한 환승 편의가 향상되고, 전북 동부권 주민들의 고속버스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산~해미~전주를 연결하는 150km 구간 고속버스 노선이 하루 4회 신설된다. 그동안 충남 서해안권 이용객들이 대전 등지에서 환승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산~대진 직행버스 노선도 하루 5회 신설·증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규 노선 운영 기간을 우선 1년으로 제한하고, 향후 운송 실적과 노선 필요성,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선 인가 후 1년 이내 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미운행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조정 검토 시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국민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 노선'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도민들의 광역 이용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에 필요한 공항버스와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